한화, New 한화 비상 새 CI 선포

김승연 회장, 100년의 꿈 대변혁 강조 … 트라이서클 시너지 기대

한화그룹은 1월3일 63빌딩에서 김승연 회장과 그룹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새롭게 채택한 CI(기업이미지) 공식 선포식을 갖고 뉴(New) 한화로의 비상을 다짐했다.

김승연 회장은 기념사에서 "오늘 행사는 지난 세기 한화가 꽃피워온 자긍의 역사를 뛰어넘어 다시 한번 새 시대로 웅비하며 기적의 역사를 창조하자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전란의 자욱한 화염위로 땀과 눈물로 축성해온 불굴의 55년이 이제 100년의 원대한 포부를 안고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지난날의 역사가 그룹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며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반세기였다면 오늘 이후 앞으로 50년은 새 가치 창출을 통해 한차원 높은 미래를 열어가는 도전과 개척의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하고 2007년을 <뉴 한화>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인류의 발전과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초일류 브랜드 달성>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그룹의 핵심정신인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최고의 고객감동을 전하는 초일류 글로벌기업의 미래상을 구현하고 ▲인류 행복추구를 최상의 가치로 삼아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하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세계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는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한화그룹의 새 로고는 Trust(신뢰), Respect(존경), Innovation(혁신) 3개의 원이 창조적으로 얽혀 끊임없는 변화와 글로벌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지닌 <트라이서클>로 제조·건설, 금융, 서비스·레저 등 그룹의 3대 사업부문이 시너지를 이루며 세계수준의 기업으로 무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한화는 김승연 회장의 의지에 따라 새해 들어 모든 사업장과 모든 업무기기 등에 새 CI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언론매체를 통해 새 CI를 알리는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화의 새 CI 적용은 1952년 그룹 창립 이후 4번째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03>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